

## “브라질 학생들, 케이팝 들으며 한국 유학 꿈”

케이팝(K-Pop)이 브라질 학생들에게 한국 유학의 꿈을 키우는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지난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브라질 미디어 UOL은 전날 브라질에서 확산하는 한류 열기로 브라질 젊은이들이 케이팝을 통해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한국의 교육 환경이 세계적인 수준인 데다 한국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받을 기회가 있다는 점에 브라질 학생들이 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상파울루 한국교육원이 지난해부터 운영하는 유학센터는 브라질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6월 말 상파울루주 캄피나스대학(Unicamp)에서 개최한 한국 유학 설명회에는 학생과 학부모, 대학 관계자 등 수백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교육원은 그동안 수도 브라질리아와 남부 포르투알레그리 시 등에서 상담회를 열었다. 캄피나스대학에 이어 다른 도시에 있는 대학들에서도 상담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오고 있다.

브라질에서 케이팝의 인기는 2012년을 기점으로 본격화했다. 그해 월드스타 사이의 ‘강남스타일’은 브라질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최근에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에 열광하면서 케이팝은 브라질에서 대중문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는 사이 한국 드라마와 영화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커지면서 한글을 배우려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 중국, ‘산아제한’ 폐지한다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기 위한 민법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2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중국 관영 검찰일보보는 전날 중국 정부가 ‘가족계획’ 부분을 삭제한 민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며, 2020년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초안대로 개정될 경우 현재 가구당 자녀 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두 자녀 정책’은 이르면 2020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산아제한 정책 도입 41년 만이다.

중국에서 산아제한이 시작된 것은 1979년이다. 급증하는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 가구당 1명의 자녀만 낳을 수 있게 하는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됐다. 벌금 부과는 물론 강제 임신중절, 불임 수술 같은 방법까지 동원됐다. 그 결과 1960~1970년대 2%를 웃돌았던 인구증가율은 2000년대 1% 아래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가 노동력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 정부는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을 도입했지만, 그해 출산율은 1,790만 명으로 전년보다 130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출생자 수도 1,723만 명으로 중국 당국의 기대치(2,000만 명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법 개정을 앞두고 분위기가 띄우기에 나섰다. 최근 중국 우정당국이 공개한 2019년 신년 우표에는 이미 돼지 부부와 함께 아기 돼지 세 마리가 등장했다.

그러나 중산층 사이에서 출산 기피 분위기가 이미 자리 잡힌 만큼, 법 개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두 자녀 정책 시행 1주년을 맞아 전국부녀연합회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0~5세 자녀를 둔 부모 1만명 중 ‘둘째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답변이 53.3%로 집계됐다.

## 북한, “접경 검문초소는 ‘돈벌이 초소’”

북한 접경지역 길목에 설치된 검문소들을 무사히 통과시켜주는 전문 브로커가 등장했다.

지난 31일 ‘아시아경제’가 자유아시아방송(RFA)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북한에서 접경지역으로 접근하려면 여러 검문소를 통과해야 한다.”며 “자동차로 접경 검문소를 무사히 통과시켜주고 돈벌이하는 전문 브로커가 많이 생겨났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전문 브로커들이 검문소를 통과시켜주는 대가로 1인당 북한 돈 10만원이나 받는다.”며 “브로커가 검문소 군인들과 짜고 북한 주민들을 통과시켜주고 있지만 당국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남한에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북한 주민들은 그들로부터 돈을 받는다는지 소식을 들으려면 전화통화가 꼭 필요

하다. 그러나 불법 휴대전화는 접경지역에서만 잘 터진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에서 접경지역 통제를 강화한 뒤 주민들이 접경지역으로 들어가려면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절차가 까다로워 대다수는 증명서 없이 브로커를 통해 들어간다.

소식통은 “접경지역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다보니 브로커들 배만 불리고 있다.”며 “증명서를 받고 접경지역에 들어가도 검열원들에게 이런저런 구실로 시달리게 마련이니 차라리 브로커를 통하는 게 속편하다.”고 말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접경지역 초소 관할 군부대 간부와 브로커들이 뇌물로 이어져 있어 초소는 있으나마나한 것”이라며 “이에 북한 주민들은 접경지역 검문 초소를 ‘돈벌이 왕초소’라고 비웃는다.”고 들려줬다.

뉴욕 맨하탄 백천 철학원이 20년만에 치노힐로 이전

#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예언가 백천 운명철학원

(한국역술인협회 미국 지구 회장)



백천 선생 (白泉 先生)

- 1976. 한국역술인 협회 정회원
- 1977. 대한 경신연합회 중앙감찰
- 1986. 세계 예언자 대회 동경
- 1989. 국제 예언자 대회 홍콩
- 2008. 한국역술인 협회 부회장
- 2008. 제20회 서울 국제 역학대회 미국 대표로 참석하고 돌아옴.

영적과 학술을 겸비한

백천선생 감평

남녀·초혼·재혼·사주·궁합·택일 전문

숫자운·색깔운·집터·사업터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909)347-0505



**치노힐** 15085 Calle Verano  
Chino Hills, CA 91709  
(909)347-0505

**엘에이** 3600 Wilshire Bl. #918  
Los Angeles, CA 90010  
(213)500-6363